

## 전원주 "남편 무서워 구부리고 빌었다"

등록 2026.02.04 15:48:06



[서울=뉴스시스] 배우 전원주가 과거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원주\_전원주인공' 캡처)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전원주가 과거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남편과의 일화를 전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전원주\_전원주인공'에는 전원주가 배우 서우림과 함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전원주는 "지금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옛날엔 남편이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전원주는 남편이 "밤낮 앞치마만 두르고 부엌데기만 하는데 늦게 들어와"라고 호통을 쳤다고 회상했다.

서우림이 "아저씨가 그랬어?"라고 놀라워하자 전원주는 "화나면 그랬다"고 답했다.

전원주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구부리고 앉아 빌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우림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닌데?"라며 의아해했고, 전원주는 "(그때는) 무서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원주는 2013년 남편과 사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